



# 작은도서관 책이랑 놀자

#서울 강북구 #자산취득비 지원

##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는 곳

작은도서관 책이랑놀자는 15년 전 주부들이 모여 마을에서 내 아이들이 마을 아이들과 함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책이랑놀자는 단순히 책을 빌려주고 읽는 공간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마을의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한 책 문화 프로그램 및 마을 공동체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가정을 위한 ‘사랑의 책 배달부’, 도서관과 놀이터, 어린이 집, 지역아동센터 등 어디서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엄마’,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 운동’, 다문화 여성들과 함께하는 ‘이웃나라 동화나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을 주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책이랑놀자는 우리 마을 주민들이 함께 책으로 삶을 나누는 ‘작은 골목 도서관’으로, 누구나 마음껏 책이랑 놀 수 있는 ‘책 놀이터’로,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꿈이 있는 공동체’로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작은도서관 책이랑놀자의 2017년은 어떠했나 요?



작은도서관 책이랑놀자의 대표단체인 (사)녹색마을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이웃, 다른 사람들은 나의 좋은 이웃’이 되어 서로 관심을 갖고 격려하면서, ‘우리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고 또 살아갈 우리들의 삶터가 보다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하며 만든 풀뿌리단체입니다. 그동안 공간마련을 위한 찾집, 녹색장터 등을 통해 후원금을 마련하고 회원들이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 공간을 조금씩 넓혀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자금이 부족하여 도서관은 12평 반지하에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사 비용과 공간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보니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필요한 사무집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어컨이 없어 선풍기를 사용해왔던 더운 여름철에는 **고충이 많았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시 때때로 수업을 방해받는 경우에는 선풍기를 끄고 진행하기도 하여 숨이 턱 막히는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여름철과 방학 때는 선풍기 바람에 의존해서라도 책을 읽으며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도서관에서 지내야 하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2017년부터는 방과 후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사설학원을 이용하지 않는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틈새돌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에어컨 시설 확충이 꼭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책장 교체도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잦은 이사로 기증받아 사용했던 책장들이 무거운 책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휘어지고 부서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몇몇 책장은 정리하고, 나머지 책장은 고쳐서 사용하는 실정이었지요. 도서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책장 교체는 시급했지만 비용문제로 교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지하 도서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중이기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영화관람 및 다양한 이용자 계층과 많은 수의 주민들이 함께 볼 수 있는 놀이터 한여름 밤의 영화 등을 구상해왔습니다. 이를 원활히 진행하려면 노트북과

빔 프로젝터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빔 프로젝터는 다양하게 책을 읽어줄 수도 있고 프로그램의 보조 활동 자료로도 활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긴급지원119를 통해 이러한 바람들을 해결하고, 도서관은 한층 더 쾌적해졌습니다. 그에 따라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도 늘고 도서관과의 관계도 돈독해졌습니다. 에어컨이 없었던 시절과 비교해보면 프로그램의 수가 증가했고 지역 주민을 위한 실과 바늘 모임, 책 소모임 등의 프로그램이 신설됐습니다. 자연스레 이용객들도 증가했고, 틈새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에 도서관을 찾는 마을 아이들과 주민들이 늘어났고, 주변에 우리 도서관을 직접 홍보해 주시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처럼 더 활기차진 2017년의 많은 순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노후화된 책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책장으로 교체하면서 도서관 책을 또다시 한바탕 정리하던 일, 유난히도 더웠던 작년 여름에 어킨 덕분에 작고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 열댓 명이 옹기종기 모여 책도 읽고 뒤영켜 지냈던 추억, 마을 아이들과 컵라면을 먹으면서 재미난 영화를 보던 라면극장까지. 2017년은 도서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 작은도서관 책이랑놀자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마을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갈 계획입니다. 작은도서관 책이랑놀자에서는 성인 책모임 및 문화 소모임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소모임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많아진 ‘틈새돌봄 서비스’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작은도서관이 마을에서 사랑받는 공간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모두 힘내요.